



양계 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종계장 생산성 저하현상 지속 540만수 생산 잠재력 불구 병아리 부족

종계장내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병아리 생산잠재력이 적정 사육수수인 500만수를 초과한 540만수 생산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병아리 부족사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원인에 대해 종계의 생산성 문제가 제일 먼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물론 지난 여름 혹서기때 타격을 입은 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준다고는 하지만 그 이상의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은가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그 하나는 질병문제이다. 몇 년 전부터 의문시 되고 있는 뉴모바이러스 문제가 아직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가금티푸스 문제 또한 그냥 간과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종계장에서 접종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가금티푸스 백신 접종은 분회 조사결과 27%에 해당하는 농가가 가금티푸스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생산성에 문제로 제기되는 것 중의 하나는 종계병아리 품질문제를 들 수 있다. 육종회사에서 한 품종을 선발하여 실용계를 생산하기까지는 5년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5년전에 선발, 육종한 품종에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를 대표하고 있는 품종들은 생산성이 과거보다 5~10%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 품종은 닭들의 균일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등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또한 종계장내 열악한 사육환경을 들기도 한다. 실제 종계 DB출장을 다니다 보면 이런 곳에서 종계가 자라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시설을 종종 볼 수 있다. 소독 시설조차 없거나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종계장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방역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오는 11월 7일부터 양일간에 걸쳐 천안 상록리조트에서는 종계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2006 전국종계인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전국의 많은 종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재의 종계산업현안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종계의 생산성, 종계 DB사업의 필요성, 종계 위생방역관리 문제 등 위에서 언급한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이면서 종계업이 새롭게 조명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계산업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양계 의무자조금 사업의 재정립 11월 육계 의무자조금 대의원총회 실시키로

양계자조금은 지난 1992년 본회주관으로 임의자조금이 조성되어 처음 실시된 바 있다. 이후 10년이 지난 2002년 정부로부터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 법제화되면서 자조금사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미 한우, 양돈, 낙농 등은 수십억의 자조금을 조성하면서 TV광고는 물론 소비촉진에 대한 다양한 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의무자조금 사업이 법제화된 이후 양계분야에서도 자조금사업 시행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다. 산란계의 경우는 배합사료 거출에 무게를 두어 추진되던 것이 배합사료업체들의 반대로 본회에서는 금년초 국회에 법률개정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국회의 검토 결과 '산란계 의무자조금은 현실적으로 여건이 미비하며 계란유통체계의 제도정비 등에 정부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본회에서 주장한 축산단체 직접수납 또는 배합사료업체에 수납위탁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남기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육계자조금사업은 지난 4월 20일 대의원총회가 실시되는 등 자조금사업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수순을 밟았지만 대의원회의 의결로 위촉된 관리위원 및 감사의 적법성여부 논란으로 장기간의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 대의원 총회 이후 1~2차례 추진위원들의 만남이 있었지만 서로간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게 되면서 추진 단체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 법제처에서는 이에 대한 해석으로 자조금관리위원은 추진단체에서 합의 추천하는 자를 대의원들이 위촉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 개의(開議) 정족수도 실제 선출되어 현재 재임하고 있는 대위원수의 2/3가 참석했을 경우라고 명확하게 명시하면서 지난 4월 20일에 대의원들이 선출한 관리위원은 위법사항으로 판명되었고, 지난해 12월 23일 대의원회가 무산된 일에 대해서도 해석의 잘못으로 굳이 무산시키지 않아도 될 일이었기 때문에 아쉬움을 남겼다.

이러한 해석이 나오면서 육계의무자조금 대의원회는 다시 개최해야 하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고 실무자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21일을 전후하여 개최할 것으로 잠정합의를 본 상태이다. 그동안 진통을 겪었던 관리위원도 단체간의 합의 끝에 최종 10명으로 확정되면서 대의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육계의무자조금 사업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이번 개최되는 대의원총회에 온 역량을 발휘하여 명실상부한 육계자조금사업의 시행을 기대해 본다. 산란계 의무자조금사업 또한 다시 병아리에서 거출하자는 의견이 재 검토되는 등 현재로서는 큰 난관에 봉착해 있지만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최근 확대되고 있는 대기업(사료회사)의 계란유통사업 확대 등에 힘입어 집하시설이 늘어난다면, 최종산물인 계란에서의 자조금 거출이 가능할 것으

로 보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야할 사항으로 남게 되었다.

월간양계 창간 37주년을 맞이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고급 정보전달에 노력...

월간양계가 어느덧 창간 37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동안 본회는 물론 양계산업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준 양계인 여러분과 관련업계 종사자들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드리는 바이다. 월간양계는 지난 1969년 양계업의 태동기에 태어나 정보를 갈망하던 양계인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전달하고 양계산업의 발전을 꾀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싶다. 월간양계가 양계인들의 동반자로서 지금까지 한번의 결간없이 발행될 수 있었던 데에는 물심양면 도움을 준 양계인 및 관련인들의 관심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월간양계는 1960년대 서울 근교를 중심으로 열리는 양계강습회와 1년에 1차례 전국을 순회하며 열리던 양계강습회가 있었으나 전국의 많은 양계인들이 정보를 습득하기에는 한계를 느끼면서 태동을 하게 되었고 탄생 이후 양계산업 발전의 활력소로 작용하면서 양계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양계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37년동안 월간양계는 초창기인 60~70년대는 양계 사양관리에 대한 기술 전달에, 80~90년대는 양계의 사육 및 시설 규모화, 자동화 등 양적인 발전에, 2000년 이후에는 소비자 위주의 양계산물 생산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들면서는 한미 FTA, 안전성문제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변화에 맞추어 업을 경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즉, 최근의 축산업 흐름은 친환경 축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웰빙과 건강을 중시한 소비자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양계산물을 생산하는데 주력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 양계산물에 대한 항생제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어 양계업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2년 “식용란에는 살모넬라가 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농림부령을 규정하고, 오는 2008년부터 농장내 HACCP 자율 사업을 실시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닭고기의 경우도 2007년부터 포장 닭고기 유통을 추진하는 등 유통개선과 소비자위주의 양계산물 생산에 노력하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이 양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끊이지 않으면서 양계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세계 양계산업은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37주년을 맞이한 월간양계도 양계인들의 앞에 서서 변화되는 시대에 맞추어 양계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해주는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린다. 특히, 넘쳐나는 홍보의 물결속에 고급정보를 선별하여 양계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양계**